

# 건강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재산.

## 동아정밀공업(주) 이 기 호

나도 어느덧 두 딸과 7월에 셋째를 출산할 아내를 둔 35세의 가장이 되었다.

2005년 5월 어느 날!

이제는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를 회고한다.

“이 기호씨! 수술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늘이 새까맣게 절망했던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수술이라니!!’

평소 약간의 허리 통증이 있어 간혹 물리치료와 약물을 쓴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 결론에 이를 줄은 몰랐다.

‘4~5번 추간판 탈출증’

흔한 얘기로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병명을, 그것도 손도 쓸 수 없이 수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저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나였기에 CT촬영을 권하는 의사에게 귀찮다는 듯 검사에 응하면 되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두 눈이 캄캄해졌다.

천진난만하기 그지 없는 두 딸의 얼굴이 내 머릿속을 스치며 고개가 절로 떨어졌다. “절망”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며 신을 원망했지만, 분명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PET금형제조회사이다. 나름대로는 업계에서 정평도 나 있으며 오랜 역사와 그 자부심 또한 크다. 내가 하는 업무는 조립부에서의 일이었는데, 무게가 꽤 나가는 것들



도 많다 보니 적잖이 힘을 써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거운 것들은 호이스트라고 하는 오토체인 장비를 이용하므로 몸에 직접적 무리가 오는 것은 아니다. 안전화를 신고, 안전교육을 받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도 정작 나의 내 업무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남의 위험은 보여도 자신의 위험에는 무지했으며, 위험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다루고 있는 중량물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었다. 전혀 엄두도 내어보지 못할 무게의 것들과

약간의 자신감만으로 충분히 들어 나를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다. 엄두도 못내는 무거운 중량물은 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는데, 이 호이스트라는 장비엔 단점이 있었다. 한 현장에 단 한 대만이 설치 운행되고 있어 누군가 먼저 쓰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용자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점이고, 사용을 하더라도 그 속도가 느려 제품의 이동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종종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힘을 들여 두 손으로 들어 나르곤 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도 절감되고 작업방법도 번거롭지 않아 더 편하다고 느꼈으며, 결국 회사를 위하는 일이라 믿었다.

그런 나의 행동이 애사심을 갖고 있는 모범적인

사원으로 만족해 하였고, 은연 중에는 내심 힘쓰기로 엄살을 떠는 동료들을 못마땅해 하였는지도 모른다.

어떤 날은 불안정한 자세로 힘을 쓰다 허리 통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물건의 이동 중에 무게의 과함을 느끼면서도 무리하게 목적지까지 참아내며 가기도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리한 작업 방법은 서서히 나의 몸을 망가뜨려 커다란 불행은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수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제서야 나의 잘못을 깨달게 되었던 것이다.

눈에 보이며 흔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안전사고 들에는 경각심을 두지만, 시간을 두고 서서히 조금



그날 밤! 난 망설임을 반복하다가 이내 아내에게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눈시울을 적셨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의 아내에게 내 눈물은 이미 늦어버린 후회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반증할 뿐이었다.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수술비와 근로행위의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황과 미래였다. 수술을 정말 해야 하는 것인지, 완치는 되는 것인지에 믿음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한숨을 들이쉬며 나를 위로 해주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다행히 나는 회사의 배려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아 경제적 부담 및 재활치료에도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씩 엄습해오는 안전사고들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우리들 주변에는 기준 이하의 조명과 유해 가스의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시력을 잃게 되거나 소음들에 의해 청력 손실과 진폐증 등의 각 가지 유형으로 산업안전재해를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지만, 그런 일이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100% 가능성을 무시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날 밤! 난 망설임을 반복하다가 이내 아내에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눈시울을 적셨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의 아내에게 내 눈물은 이미 늦어버린 후회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반증할 뿐이었다.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수술비와 근로행위의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불안한 경제적 상황과 미래였다.

수술을 정말 해야 하는 것인지, 완치는 되는 것인지에 믿음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한숨을 들이쉬며 나를 위로 해주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다행히 나는 회사의 배려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아 경제적 부담도 덜수있었고, 재활치료에도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허리에 무리함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 회

사에서는 부서를 옮겨 주어 지금 나는 제2의 근로인생을 맞이하였다.

돌아보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되었고 회사와 동료들의 배려로 새로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다시 웃을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산재 시스템의 도움이 아니었다라면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피해 의식 등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후회만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나는 지금 무척 행복하다. 즐거울 수 있어서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후약방문’ 이라 했다.

미리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나와 내 가족과 내 사업장의 불행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사업장내에서의 안전관리수칙의 철저한 이행과 근로자 개개인의 의식 속에 안전이라는 두 단어를 새겨야 한다.

안전은 실천이며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서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주의 의무를 다할 때 혹시라도 닥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불행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건강은 그 자체만으로 큰 재산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